

중양절과 경로사상

음력 9월 9일 중양절은 중국의 중요한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이다. 중양절의 풍속에 관해서는 예로부터 문인들이 즐겨 이야기해 온 바가 있는데, 재액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수유(茱萸)를 몸에 지니는 것, 국화를 감상하는 것, 국화주를 마시는 것, 중양떡을 먹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고자 했던, 선인들이 중양절을 마련한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

중양절의 핵심 의미는 장수를 기원하는 데 있다. 중양절의 상징인 수유와 국화는 가을철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삼국시대 위나라의 문제(文帝) 조비(曹丕)는 어느 해 중양절에 친구 종요(鍾繇)에게 국화 한 다발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동봉했다.

“세월이 흐르고 달이 바뀌어 어느덧 다시 9월 9일이 되었네. 아홉은 양수이니, 이날은 달과 날의 수가 함께 응한다네. 세속에서는 그 이름을 길하게 여겨 오래가기에 적합하다고 하여 연회를 베풀고 성대한 모임을 즐긴다네. [.....]향기로운 국화는 홀로 무성하게 피어나니[.....]몸을 보양하고 수명을 연장함에 이보다 귀한 것이 없다네. 이에 한 다발을 삼가 보내니, 팡조(彭祖)의 장생술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네.”

조비의 이 편지는 중양절의 의미를 최초로 언급한 문헌 가운데 하나로, 그는 아홉이 양수임을 들어 9월 9일이 장구함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또한 국화가 ‘팡조의 장생술’을 돕는다고 하였다.

“인생은 백 년도 채우지 못하면서 늘 천 년의 근심을 품고 산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화하(華夏) 민족은 예로부터 장수를 기원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명절을 지냈다. 『시경』에는 “구월에는 찬 서리가 내리고, 시월에는 타작마당을 정돈한다네. 쌍쌍이 놓인 술로 잔치를 베풀고 어린 양을 잡는다네, 저 공당(公堂)에 올라가서 뿔잔을 들어 올리며 만수무강을 비노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축복과 장수 기원이 가을 추수 잔치를 여는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수를 기원하려면 반드시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따라서 옛날에는 가을 수확철에 어른을 봉양하고 위문하는 풍습이 있었다. 『예기·월령(禮記·月令)』에는 “중추의

달에는 [.....] 쇠약한 노인을 봉양하고, 안식과 지팡이를 내려 주며, 미죽(糜粥)을 베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대의 천자는 8 월 중추에 노인들에게 기댈 수 있는 안식과 지팡이를 하사했으며,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 미록(麋鹿)고기로 쏜 죽을 내리기도 했다. 미록 고기는 자양 효과가 있어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며, 죽으로 푹 끓이면 노인이 먹고 소화하기에 편하다. ‘중추에 쇠약한 노인을 봉양하는’ 목적은 바로 어른들이 건강하게 백세까지 장수하기를 바라는 데 있으며, 이는 가을 추수 제사에서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와 서로 통한다.

한(漢)나라 사람들은 『월령』을 중시하였으므로, 한나라 조정은 『월령』에 나오는 중추 무렵의 양로와 관련된 풍속을 국가적 제도로 시행하였다. 『후한서·예의지(後漢書·禮儀志)』에는 “중추의 달이 되면, 각 현과 도에서 호적을 조사하여 백성을 점검한다. 연세가 일흔이 넘은 노인들에게는 왕장(王杖)을 하사하고 미죽을 베풀며, 여든이나 아흔이 되면 더욱 많은 예우를 해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매년 8 월 중추에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일흔이 넘은 노인들은 모두 조정의 양로 복지 혜택을 누리게 했다. 일흔 이상 노인에게는 지팡이와 미죽을 하사하고, 여든·아흔 노인에게는 별도의 하사품을 추가로 내렸다.

또한 책에는 왕장의 구조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장은 길이가 아홉 척이며, 상단에는 산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한다. 산비둘기는 음식에 목메지 않는 새이므로, 노인이 음식에 목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왕장의 상단에 산비둘기 모양을 장식한 것은 노인이 치아가 빠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져 음식을 드시다 목메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막힘없이 잘 드시기를 기원한 것이다. 이는 노인에게 푹 끓인 미죽을 하사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1959 년 감숙성(甘肅省) 무위(武威)시 마저자(磨咀子) 한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산비둘기 장식 지팡이는 한나라의 경로 풍속을 보여주는 실물 증거이다. 지팡이와 함께 출토된 10 매의 한나라 죽간(漢簡)에는 황제가 내린 경로 조서가 적혀 있었는데, 일흔 이상의 노인에게 왕장을 하사하고, 그 왕장에 산비둘기 장식을 하게 하며, 이 지팡이를 든 노인은 조정의 부절(符節)을 지닌 관리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관리나 백성이 이 지팡이를 지닌 노인을 함부로 대하면 대역무도죄로 처벌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동한(東漢) 시기에 이르러 명절은 차츰 매월 특정한 날짜로 고착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상사절(上巳節)은 3 월 3 일, 단오절은 5 월 5 일, 칠석은 7 월 7 일로 정

해졌으며, 경로절은 9월 9일로 정해졌다. '구(九)'는 가장 큰 수이며, '구구(九九)'는 '구구(久久)'와 음이 똑같아 영원함과 장수를 의미한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취지의 명절을 이 날로 정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이 명절은 이로부터 '중양(重陽)' 또는 '중구(重九)'라 불리게 되었다.

경로절이 중양절 혹은 중구절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날짜와 명칭은 정해졌으나, 세월이 흐르자 새로운 명칭이 점차 이 명절의 본래 취지를 가리게 되었다. 후대 사람들은 중양절을 맞아 단지 높은 곳에 올라 유람하고, 국화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는 데 열중했을 뿐, 중양절에 담긴 '경로'의 본뜻은 점차 잊혀갔다. 한위(漢魏) 이후로는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짓는 일이 문인들의 풍류가 되었고, 수많은 중양절 관련 시문 가운데 널리 회자되는 명편도 적지 않지만, 노인 공경 풍속을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명·청 이후의 지방지에 나타난 중양절 풍속의 기록 역시 높은 곳 오르기, 국화 감상, 음주, 중양떡 먹기 등이 주를 이룬다.

2012년에 이르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을 개정·통과시켜, 매년 음력 9월 9일을 '노인의 날'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제도적 차원에서 중양절에 깃든 오래된 문화적 기억을 다시 일깨우게 되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미덕을 지녀 왔다. 오늘날 중국이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공경의 전통적 미덕은 더욱 소중해졌으며, 중양절에 원래 담겨 있던 노인에 대한 존중과 공경의 정신적 가치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널리 알려야 한다.